



‘한우가 대중화 된다고(?)’

이마트 ‘한우 80/20’ 법칙... ‘숙성’ 선호도 ↑
등심 가격 상반기 동결... 전년비 52% 증가

우리나라에서는 비싸고 고급 음식이라 불리는 한우. 그런 한우의 대중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한우에는 새로운 법칙이 생겼는데 이른바 이마트 ‘한우 80/20’ 법칙이다.

18일 이마트에 따르면 ‘웻 에이징(Wet Aging)’ 한우 등심 가격을 올해 상반기 내내 동결하고 숙성한우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가 증가함에 따라 숙성 한우가 ‘등심+채끝’ 매출의 80%, 한우 전체 매출의 20%를 차지했다.

이는 이마트가 가계부담 줄이기 일환으로 지난해 1월3일부터 7월3일까지 상반기 내내 ‘웻 에이징’ 한우 등심을 3% 할인해 1등급은 5천990원(100g), 1+등급은 6천990원(100g)에 판매하고 있는 것이 효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웻 에이징’ 한우의 급속한 대중화로 올해(1월1일-4월11일) 이마트의 숙성 한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했다.

특히 국내 소비자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구이용 부위인 등심과 채끝의 합

산 매출 비중에서는 전체의 팔 할(80%)을 숙성 한우가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까지 구성비 50% 수준에서 올해 30%p나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채급 중량이 큰 한우MD로서는 이례적 결과다.

이마트는 한우가 수년째 고시세 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가격 동결’ 등을 통해 가계부담 낮추기에 힘을 쏟고 있다.

축산물유통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한우는 2014년부터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연도별 한우 평균 도매가격(1kg당)을 살펴보면, 1+등급 기준 2014년 1만5천656원에서 2015년 1만7천649원, 2016년 1만9천410원으로 2년 사이 23%가 뛰었다.

그 이후로도 1만8천원-1만9천원으로 고시세를 유지하고 있는 탓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수입육으로 선호도가 분산되는 추세다.

이에 이마트는 일반 한우보다 더 품미가 뛰어난 ‘에이징 한우’를 도입하고 2016년 12월 경기도 광주시 미트센터 내 대형 숙성고를 건립해 별도 추가비용 없이 저렴한 숙성 한우를 직접 생산하고 있다.

숙성 한우 대중화를 이끈 또 다른 트렌드는 ‘스테이크’다.

한우 소비 방법이 기존의 불판 구이뿐만 아니라 스테이크로 다양화되면서 한우 스테이크 정육의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올해(1월1일-4월11일) 101% 뛰었다.

한우 스테이크 정육의 대표 상품이 이마트 미트센터가 직접 숙성하는 등심과 채끝 부위다.

홍성진 이마트 축산팀장은 “숙성 한우 상반기 가격 동결이라는 과감한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마트의 다양한 인프라를 통해 가격을 낮추고 프리미엄 상품 대중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대형마트와 백화점도 한우의 대중화를 위해 다양한 한우 행사를 벌인다.

먼저 롯데마트 상무점은 오는 24일까지 명품한우인증 2년 연속 수상을 기념해 ‘지리산 순한 생한우’를 옐포인트 회원 고객에게 전품목 25% 할인된 금액에 판매한다.

창립 40주년을 맞아 한우 품질 업그레이드를 선언한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지하1층 정육매장에서 다음달 3일부터 8일까지 고품질 한우 특집전을 연다. 특집전을 통해 한우1등급 등심(100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하1층 한우코너에서 고객들이 품질 좋은 한우를 고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g) 우대가 7천980원, 한우1등급 국거리(100g) 우대가 3천980원, 한우 사골(100g) 우대가 990원, 한우 1++등급 등심(100g) 우대가 9천800원에 선보이며, 5

만원 이상 구매시 복분자즙을 선착순 50명 한정으로 증정한다. 한우는 명절 때 가장 인기 있는 상품 중 하나로 백화점 주력 신선식품 중 하

나다. 롯데백화점은 고객 만족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백화점 최고 품질 한우를 선보이겠다는 방침이다.

/임후성기자

‘중국 1위’ 맥주 국내 상륙 주목

시장점유율 26%... 中 화운설화 ‘슈퍼엑스’ 출시

국내 소비자에게 친숙한 ‘칭따오’와 ‘하얼빈’ 맥주에 이어 제3의 중국 맥주가 우리나라에 출시됐다. <사진> 국산 맥주보다 저렴한 것으로 알려진 새로운 중국 맥주가 전 세계 맥주 브랜드들의 각축장이 된 한국에서 소비층을 파고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주류 수입업체 현원코리아는 중국 화운설화맥주의 ‘슈퍼엑스’(SuperX) 브랜드를 국내에 공식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원코리아는 중국 화운설화맥주의 국내 독점 판매 법인으로 지난해 4월 정식 출범했다.

‘슈퍼엑스’는 역동적인 이미지의 포장 앞세웠다. 중국 간체자 한자 표기를 포장에 적용해 중국 브랜드라는 점을 전면에 내세웠다. 병에 인쇄된 ‘용틀연(龍關天崖)’라는 슬로건은 ‘세상 끝까지 용감하게 달려간다’는 의미

다. 독일 고품질 허스부르크 홉과 뮌헨 맥아를 넣었고, 송백·감귤 향을 첨가해 과일 맛을 살렸다.

설화맥주가 속한 CR그룹은 부동산 개발, 전력, 가스, 시멘트, 제약·바이오·맥주 사업 등을 하는 중국 국영 기업이다.

이 제품은 중국에서는 지난해 3월 출시됐다. 그룹 자체의 색인인 브랜드 모델로 활동한 바 있다.

국내용은 알코올 도수 3.8%로 출시된다. 전국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가정용 시장에서는 500ml 캔, 업소 시장에서는 330ml·500ml 병으로 나온다.

설화는 중국에서의 판매량을 토대로 전 세계 시장 점유율 6.1%를 차지한다.

단일 브랜드 기준으로는 세계 판매량



1위이다. 중국 내 시장점유율은 26%에 달해 2017년에 1천181만9천ℓ를 팔아치웠다.

13억 중국 시장을 토대로 ‘세계 점유율 1위’를 확보했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는 ‘중국산’이라는 소비자의 심리적 장벽을 넘을 수 있느냐가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위니아, 차량용 공청기 ‘스포워셔’ 출시

대우위니아는 차량용으로 쓸 수 있는 소형 공기청정기 ‘위니아 스포워셔’ 2019년형을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제품은 차량 컵홀더에 들어갈 수 있는 텀블러 형태의 크기로 제작됐으며, 기존 습식형 스포워셔가 아닌 필터식 스포워셔로 공기청정 기능을 강화했다고 대우위니아는 설명했다.

필터식 스포워셔는 물을 사용하지 않고 프리필터와 탈취필터로 구성돼 있으며 미세먼지와 함께 각종 생활 냄새를 제거한다.

제품 상단의 ‘스마트 클린 라이팅’은 공기청정도를 3단계로 나눠 각기 다른 색으로 표시한다.

김혁표 대우위니아 대표이사는 “미세

먼지 문제가 악화하며 집뿐만 아니라 자동차 등 개인이 머무는 다양한 장소에서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LG전자 또한 LG퓨리케어 미니 공기청정기를 출시했으며, 불스원, 락앤락, 암웨이 등도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출시한 바 있다.

신형 위니아 스포워셔 출하가는 14만 9천원이며, 차콜그레이와 골드피치 색상이 있다.

/임후성기자

광주신세계, 지역인재 희망 장학금 전달식

광주신세계는 18일 백화점 8층 커뮤니티룸에서 최민도 광주신세계 대표이사, 김은영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4기 지역인재 희망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광주신세계는 이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6천만원을 시작으로 서구장학재단, 옥수장학재단 등 단체에 순차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장학금 수여 대상자는 소년·소녀가

장 및 차상위층 계층 자녀, 사회봉사 활동 우수자 등으로 올해 130여명의 우수한 학생을 추천받아 연간 총 1억3천만원

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민도 대표이사는 “1995년 오픈 당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따뜻한 기업이 되겠다는 목표를 삼고 지금까지 영업을 왔다”며 “이를 변함없이 실천하기 위해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역 청

소년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대상으로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신세계는 1995년 개점 초기부터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지역 내 관공서 및 장학재단 등과 연계해 광주지역 중·고등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올해까지 포함해 24년간 지속된 광주신세계 장학 사업은 어려운 기업 영업환경 속에서도 학업에 매진하는 지역 인재 2천600여명에게 총 27억여원을 지원하는 높은 성과를 냈다.

/임후성기자

남구 덕남동, 임야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
- 임야 22600평중 300평, 지분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매입함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투자적합
- 장/단기 최고 투자처
- 매매 - 7,500만원

문의. 010-6834-7400

